

박홍근 장관의 설명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초중등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교육분야 전반의 균형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보도내용>

- 2026.8.14.(금) 오마이뉴스는 「대통령도 본 박홍근의 ‘교육교부금’ 설명 영상, 내용 틀렸다」 제하의 기사에서,
 - “박 장관의 '교육교부금이 초중고 교육에만 쓰도록 되어 있다. 교육교부금을 개편해서 유아교육 등에 골고루 예산 투자를 하자는 취지'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현행 교육교부금법 등에 따르면 교부금은 '시도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사립도 포함)도 교육교부금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등으로 해마다 쓰이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 입장>

- 영상 속 박홍근 장관의 설명은 현행 교육청의 세출예산이 초중등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교육교부금의 개편을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균형 있게 투자하자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26년 본예산 기준 교육분야 투자는 99.9조원이고, 이 중 71.7조원이 교부금으로 지원됩니다. 반면, 고등교육은 16.3조원, 영유아교육은 9.3조원 (영유아특별회계 기준), 평생·직업교육은 1.3조원에 불과합니다.
-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 OECD 공교육비 평균지출액 대비 초등교육은 155%, 중등교육은 179%인 반면, 고등교육은 69%로 교육부문 간 불균형이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평생교육은 '26년 교육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합니다.
-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의 질 개선 및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등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영유아·초중등·고등·평생 및 인재 유치 등 생애 전 단계에 걸쳐 균형 잡힌 전략적 교육투자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지출혁신과	책임자	과 장	문상호 (044-214-1870)
		담당자	사무관	양성철 (yg1102@korea.kr)